



제목	Islamic Mystical Poetry: Sufi Verse from the Early Mystics to Rumi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Penguin Classics
발행일	2010. 1. 26.
저자	Mahmood Jamal (편집자 겸 번역가)
출판도시	London
페이지수	400
ISBN 또는 ISSN	978-0140424737

내용 요약

이 책은 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쓴 수피 시를 번역하여 집대성한 결과물로서 8세기 여류 수피 시인 라비아 바스리(c. 714~801)의 시 7편을 비롯해서 만수르 할라즈(c. 858~922)의 시 21편, 셰이크 압둘라 안사리((1006~1088)의 프롤로그와 시 8편, 아흐메드 자미(1048~1141)의 시 5편, 사나이 가즈나비(1080~1131)의 시 8편 등 12세기 초반까지 수피 시가 50여 편이 수록되어 있다. 니자미와 아타르, 루미, 사디, 유누스 엠레, 자미 등 12세기 중반부터 15세기에 주로 활약한 페르시아 수피 시인들의 시가 150여 편 들어 있고,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활동을 한 술탄 바후(1630~1691)와 바바 불레 샤(1680~1757), 샤 니아즈 아흐메드(1742~1834), 미안 무함마드 박쉬(1830~1907)의 작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수피 시인들의 시들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주제는 사랑과 연인, 와인, 선물집, 술시동 등과 같은 단어 속에 녹아들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서두에 수피즘과 신비적인 수피 시의 보편적인 주제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해 준 것이 이 책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남녀 간의 헌신적인 사랑과 신과의 사랑, 연인과의 결합과 신과의 합일을 위한 모든 시도를 반영하면서 한편으로는 술과 취함을 상징과 은유를 통해 극대화함으로써 점신이라는 수피즘의 중심 사상을 발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신적인 사랑보다 인간 개개인의 사랑을 지상에 남기려고 하는 시인의 눈물겨운 투쟁에 동조한다. 이 번역 작품 속에는 본래 이 시들을 쓴 시인들의 시적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